

## 비생산적 업무관행, MZ공무원이 직접 바꾼다 행정안전부 업무 혁신 가속도

- 저연차 공무원 중심 ‘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’ 출범, 11개 혁신과제 추진
- ‘부서장 부재시 업무보고’ 작성 금지 등 관행적인 업무 대폭 간소화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주도해 조직 내 비생산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「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」(이하 ‘위원회’)를 구성해 총 11개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-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저연차 공무원 총 7명으로 구성(3년차 이내 5명, 4년차 이상 2명)되었으며, 특히 공직 경력 2년 차인 32세의 젊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.
- 중앙행정기관 내에서 MZ세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혁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,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신선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
- 위원회는 젊은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으로 하던 사례를 발굴하고, 공직사회가 인공지능(AI)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모색하여 행정 혁신을 주도한다.

### <익명게시판으로 11개 추진과제 발굴해 개선 추진>

- 행정안전부는 지난 2달간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조직 내부의 비생산적인 일을 발굴했다.
- 지난 4월 14일 열린 제1차 혁신행정 플러스 위원회에서는 김민재 차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했다.

- 위원회는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된 11건의 개선과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.

<의전성 보고 퇴출, SNS와 시스템 활용으로 실용성 높여>

-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부서장 부재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부재중 업무 보고 폐지다. 부서장이 자리를 비울 때 실무자가 별도 보고서를 작성했으나, 앞으로 SNS를 활용해 간략히 보고하거나 복귀 후 구두 보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.
- 또한, 평가 시기마다 부서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 방대한 참고자료 작성 문화에도 제동을 걸었다. 위원회는 자료 작성시 분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해 행정력 낭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.
- AI시대에 걸맞지 않은 수기 작업과 비효율적 취합 절차도 개선한다. 각 팀이 작성해 부서 서무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던 번거로운 방식 대신, ‘업무 플랫폼의 공동 편집 기능’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.
- 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동해 연락처 등 변동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고, 휴직자의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고충 해결도 함께 다룬다.
- 혁신행정 플러스 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석하여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난 김민재 차관은 “이제는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이나 비생산적 일에 힘을 쏟는 대신,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과 집행에 더 집중해야 한다”고 당부하면서
- “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선도부처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	책임자	과 장	박순영 (044-205-1461)
	혁신행정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박은희 (044-205-1473)

